

2012년 고용노동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

남재량*

어려운 시기이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가 했더니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한 중국마저 저조한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위안이 되지 못한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가 이러한 대외 악재들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내수마저 위축되고 있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욱 높아져, 기업과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이 삼복더위에 얼어붙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 우리가 거둔 고용 성적은 대단하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 상반기에 비해 44만 9천 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이 경기에 후행함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상황에 비해 매우 우수한 성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 성과가 우리를 둘러싼 여러 경제여건들의 악화에 상관없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인가? 상반기 고용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고용을 전망해보도록 하자.

먼저 연령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50대와 60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관점을 달리하여 최근 추이를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계절조정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가 여전히 고령층이 상반기 취업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향후 고령층 고용변화가 하반기 고용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취업자 증가를 종사상의 지위로 구분하여 보면 임금근로자, 특히 상용근로자 증가가 가장 크나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었다. 반면 자영업자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감소세에서 벗어나 2011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취업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자영업자 증가는 대부분 50대와 60대 고령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신규 창업 증가뿐만 아니라 기존 자영업의 유지 증가, 즉 퇴출감소와도 관련이 깊다. 최근의 경기악화와 향후 고용전망에서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mam@kdi.re.kr).

반면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나타났던 제조업 고용증가는 일시적 현상에 그쳤으며 2011년 8월부터 제조업 고용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제조업의 고용부진은 성장부진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조업 상용근로자 증가폭의 둔화가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의 둔화를 주도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올 상반기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516천 명이나 증가하여 고용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 고용증가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50~60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내수부문에 치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상용직 증가세 둔화와 고령층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부문 고용증가로 요약되는 상반기 고용성과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세계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감소는 제조업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고,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내수부진은 서비스부문의 고용견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후퇴가 외환위기와 같은 엄청난 충격이 아니라면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이 한꺼번에 그리고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 고용은 이미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진 상태이다. 50~60대 고령층 자영업의 퇴출감소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올해 하반기의 고용사정은 상반기의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노동시장이 붕괴될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닌 듯하다.

한편 경기침체가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의 지불능력은 저하되는 가운데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근로자들의 생존권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파업발생건수 및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가 최근 수년 만에 가장 높다. 올해 임금교섭 진행상황을 보더라도 교섭 타결률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노동관련 쟁점들을 정치 이슈화하려 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결국 하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될 수 있으며, 50~60대 자영업자 위주의 고용유지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와 기업의 지불능력 약화로 노사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상황과 맞물려 노사관계가 정치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흐름과 노사갈등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정책 후보군들을 미리 마련하여 대처하여야 하겠다. **[KLI]**